

미사 안내		 <p>천주교서교동성당 http://www.seokyo.or.kr</p>	성무 안내	
미사시간	18:00 (초, 중고등부 주일학교)		병자성사	신청 시 수시로
주일	06:00 (일 반)		봉성체	매월 마지막 금요일
	09:00 (일 반)		유아세례	3월.6월.9월.12월 첫 토요일 오후2시
	11:00 (교 중)		혼인면담	1개월 전 신청
	18:00 (청 년)		축복식	신청시 수시로
평일	06시 월 10시 화, 수, 목, 금, 토 19:30 (화, 수, 목)		주일학교(교리) 안내	
성모신심미사 : 첫 주 토 10시 성시간 : 매월 첫 목 19:30 미사 고해성사 : 매 미사 20분 전		주일학교	토요일 16:30-17:30 (당분간 없음)	
		성소개발비	성소자 지원을 위한 교무금1개월더하기 (년)	

04054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5길 12 ☎ 326-1784 · 1785(팩스)
 주임신부 : 이종남 라이문도 326-1781
 부주임신부 : 홍웅기 아우구스티노 326-1782
 전교수녀 : 임 바드리시아, 이 아녜스 326-1783
 사목회장 : 임영근 모세 010-9410-5409 연례회장 : 오재호 펠릭스010-3719-9720

“미사의 생활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” “생활의 미사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”

☞ 다음주일 교구내 성지개발 2차 봉헌

다음주일(20일)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며 본당의 날입니다. 교구내 성지개발로 중립동 약현성당과 서소문 성지 개발을 위한 2차헌금 봉헌이 있습니다.

† 교무금 †

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는 봉헌금입니다. 교무금은 가족 구성원중 신자인 가족 구성원들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합니다.
 (재)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 국 민 : 032-25-0013-402 · 우 리 : 1005-101-115034

☞ ‘성전 재봉헌’ 40일 ‘비나체’ 기도 마감

성전 재봉헌 40일 기도가 9월18일(금)에 마치게 됩니다. 40일 기도를 마치신 분은 본당의 날(20일)인 다음주일까지 기도카드를 본당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안내

10월1일(목)은 한가위 명절로 합동위령미사가 **오전6시와 10시**에 있습니다. 돌아가신 선조와 부모, 형제를 위한 위령미사 예물은 본당사무실로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예비신자 교리중

주일반 : 오전 9:30
 화요일반 : 오후 8:00

☞ 8월 본당살림과 전입교우

주보7면에 8월 본당살림과 전입을 오신 교구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. 해당 구역에서는 전입가정에 본당 소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예비신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김대건신부님 성상과 예수성심 상

성전 재봉헌을 앞두고 본당에 한국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상을 성전입구에 새롭게 모시고 입구쪽 예수성심상도 도색을 통하여 새 단장을 했습니다.

하느님의 뭇 봉헌

(교무금, 감사헌금은 계좌이체와 은행수납 가능)

교 무 금(74세대).....5,666,316
 주일헌금.....1,907,200
 감사헌금.....400,000
 손승희 엘리사벳...200,000 장소영 소화대사.....100,000
 장나래 율리아.....100,000

☞ 교무금 책정과 통장에 대한 안내

전입을 오신 세대에서는 교무금 통장을 본당사무실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책정을 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신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 본당 통장으로 입금시에는 전 본당으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.

김대건 신부 성상대금 / 익 명 3,000,000

(빈첸시오 노숙자돕기 노숙숙 프란치스카 1,000,000

익 명 쌀 20kg, 마스크 200개 기증)

☞ 유초등부 신앙학교

- 일 시 : 10월17일(토)고학년 / 18일(주일)저학년
- 장 소 : 성당과 회합실등

미 사 성 가 (변경 될 수 있음)	입 당 283	봉 헌 459. 18	성 체 167. 168	파 견 285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



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니 자애는 넘치시네